



갑상선 기능 이상

양태영 태영21병원장

무기력하고 체중 줄었다면 일단 검사를



양태영 태영21병원장이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회사원에 대해 갑상선 검사를 하고 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장기로 목 앞부분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질환은 심저 갑상선암조차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한 질환이고, 증상도 모호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쉽게 피곤하고 살이 빠지거나 손이 떨리며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을 단순히 현재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생긴 것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갑상선 기능이상 때문이라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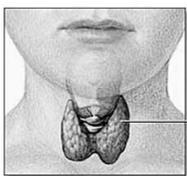
갑상선 기능이상에는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다는데?

갑상선질환의 대부분은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발생한다. 먼저 항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맞는다 하면, 이 독감예방접종은 독감 균에 대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주사이다. 그래서 독감균이 우리몸에 들어오면 이 항체가 독감균을 공격해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자기 몸, 즉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스스로 생겨 갑상선을 외부에서 침입한 균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예방접종을 맞아서 생긴게 아니고 스스로 생겼다고해서 이 항체를 자가항체라고 부르고, 이런 질환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

갑상선에서 항진증의 대표인 그레이브스, 저하증의 대표인 하시모토갑상선염이 바로 자가면역질환이고 갑상선질환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 혹은 저하 됐을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 검사를 하는지?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



갑상선

항진되면 더위와 땀에 취약 저하되면 피곤하고 체중 줄어 주로 호르몬 보충 약물 치료 정기검사로 꾸준한 추적 필요

저 더위를 못견디고 땀을 많이 흘리며, 손발이 떨린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도 예민해지며, 안구 돌출도 1/3 정도에서 발생한다. 물론 다른 질환때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젊은 여성이 쉽게 피로하고 땀이 많거나, 살이 빠지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면 제일 먼저 갑상선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신진대사가 떨어져 식욕이 없고 항상 피곤하다. 또한 얼굴이나 다리가 붓고 변비, 우울감, 생리불순이 발생한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의심되므로 먼저 갑상선검사가 필요하다.

갑상선기능 이상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는 약물요법, 방사선 요오드, 수술 등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 보완적으로 치료한다. 어떤 치료를 먼저 선택

할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과 유럽은 주로 약물치료를 선호하고, 미국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1차 치료로 선택한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원인에 관계없이 갑상선호르몬만 보충해주면 된다.

갑상선질환이 있으면 미역 다시마같은 요오드 함유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연관이 있나요?

갑상선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요오드라는 물질이 꼭 필요하다. 이 요오드는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어서 다시마, 미역, 김, 그리고 소금에 많이 들어 있다. 즉 해조류에 많이 있는데, 해조류는 실제 칼로리는 거의 없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각종 무기질을 많이 함유한 좋은 식품이지만, 갑상선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치료에 지장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먹는 정도의 양은 전혀 문제 되지 않으므로 갑상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안 먹도록 필요 없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포함해 갑상선질환 예방법은?

갑상선은 우리주변에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다양스럽게 갑상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 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드물다. 다만 방심하다보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조금만 신경쓰면, 편하게 지낼수 있는데 치료를 소홀해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안고 평생을 지내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갑상선질환은 증상만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에 갑상선질환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예방과 완치의 지름길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소통과 배려의 '조선대치과병원'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 도시락 데이' 행사를 갖고 있다.

개원 40돌...글로벌 병원 도약 선언

호남 최초의 치과대학병원인 조선대치과병원이 개원 40돌을 앞두고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병원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병원시설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올해부터는 고객과 지역민을 경영의 축으로 삼는 운영에 돌입한다.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은 최근 취임 직후, '작은 개선! 큰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병원이 시설과 의료기술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목표인 환자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즉 구성원 모두가 환자를 위해 조그만 불편이라도 해소하려는 배려, 병원 발전을 위한 사소한 아이디어,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 등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최고의 치과병원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조선대치과병원은 1978년 호남 최초의 치과대학병원으로 개설한 이래, 거점 치과병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국내외 진료봉사를 통해 아시아 최고 치과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치과병원 내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전자차트(EMR) 및 치과용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촬영기(CT)를 도입해 디지털 진료시대를 열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진료시대를 열었다.

치과병원은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해 한달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동치과진료버스 진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얀마, 아이티, 케냐, 캄보디아 등 지구촌 곳곳의 의료 불모지를 찾아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조직문화, 산학협력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다"면서 "여기에 지속적인 사회적 봉사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치과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관 병원장은 대한레이저치의학회장과 대한국제임플란트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턱관절학회·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치과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수련교사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한 모교인 조선대에 약 3억원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는 등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작심삼일 안되게... 금연실천 도와드려요"

화순전남대병원, 상담·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금연사업 핵심거점기관으로서 캠페인 전개, 네트워크 구축, 상담과 치료 등 맞춤형 금연정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내 프로그램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5일), 지역 곳곳에서 여는 일반지원형 금연캠프(1박2일)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1년간 총 15차례 진행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는 154명이 참여, 약 60% 정도가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들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체계적인 치료와 전문상담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높은 금연성공률을 기록

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올해도 15차례 화순전남대병원과 빛고를 전남대병원에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열 예정이다. (문의전화는 061-372-9030). 이와 병행해 '찾아가는 금연버스'를 운영,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금연지원센터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대학생·여성 흡연자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버스에는 전문 상담실이 마련돼 있고, 흡연자들의 건강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일산화탄소 측정기 등의 장비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전남도내 캠퍼스를 방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상담·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